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무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크나큰 공지와 환희에 넘쳐 조선로동당 당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10월의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혁명의 전위대, 전투적참모부의 탄생을 경축하는 의의깊은 혁명적명절입니다.

오늘의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우리당이 장장 70년간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궁지높이 돌이켜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높은 우리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이 우리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인민은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하여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전례없는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이 시각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우리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당이 이루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인민의 승리입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호소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들을 편이어 창조하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뜻뜻이 들어선 우리의 미더운 당원동지들과 영웅한 인민군장병들, 자랑스러운 청년전위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인민의 경사의 날을 축하하여 여기에 참석한 여러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당, 참다운 령도적정치 조직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우리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습니다.

력사에는 우리 혁명처럼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걸음걸음 혁명의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례는 없습니다.

신생조선은 너무도 청소하였으나 세계제폐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빙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험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당은 그 어떤 곤경속에서도 항상 배심든든히 돌진하였으며 이 땅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만을 안아왔습니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었으며 우리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습니다.

지난날 세계혁명운동사의 교훈은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여 저절로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높아지고 혁명을 잘 이끄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쌍아울린 거대한 업적은 혁명 그 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한 여기에

우리당이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계 틀어쥐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출기차게 이끌어온 근본비결이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입니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우리당이 세기적인 략후와 빙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세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였습니다.

우리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여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천신만고를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온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당만이 베풀수 있는 인민사랑의 정치입니다.

우리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인민들은 당을 진정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인민은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설음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총대우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인민입니다.

우리당은 언제나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빼려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지금우리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언제나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위력한 보검이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힘있는 선봉대, 돌격대였습니다.

경제국방병진로선을 제시하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에 우리당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인민생활도 향상시켜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화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광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조국통일》 등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광장상공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울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 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애국가와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참모장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을 시작 하겠다는것을 보고드리였다.

(1면에서 계속)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쑤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 할수 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남다른 궁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청년 대군이 준비되어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창당 첫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전당이 일상적으로 청년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동맹에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넌데들마다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찬 청춘대기념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 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퍼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조선인민군 평양군부대가 70발의 폭포를 발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열병대원들과 군중들은 우리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을 뿌리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앞

을 지나는 열병대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하늘가에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화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10일 저녁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아들딸,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이 땅에 청년사랑, 청년중시의 대경륜을 펼쳐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혁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여나갈 일념안고 혁명학원대렬, 청년대학생대렬, 근로청년대렬들이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화불행진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 글발 《김일성 1994. 7. 7.》이 누리를 밝히고 《자주통일》, 《평화》, 《친선》, 《우리 민족끼리》, 《6.15》 등의 글발들과 도형들이 펼쳐져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부강하고 통일된 장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화불행진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맨 앞장에서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사상관찰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천연한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동지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혁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둑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처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혁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혁사의 전철기를 쥐고있기에 영원히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해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 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펼치고있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으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혁사적 정은 당에 충실했던 인민이 있고 강위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에 혁명적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조선로동당의 더없는 영광과 불패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데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선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자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백방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혁사를 수놓아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멀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 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치발 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 올것입니다.

우리 당은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혁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했을것입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용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 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따라온 부대강화의 자랑찬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군부대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와 그 관철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묵해하시면서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앞으로 부대당위원회가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부대사업의 중심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항별로 하나하나 드림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장군님을닮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험준한 산악도 진펄도 단숨에 날아넘는 펼펼나는 일당백의 싸움군, 천만대적도 무쇠주먹으로 단매에 부셔버리는 맹장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작전연구실, 군사상학실, 종합훈련실을 돌아보시면서 군부대의 전투임무와 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묵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창건 70돐을 높은 전투정치훈련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올해 훈련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조선로당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의

요구대로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각종 당과 일일창고, 콩창고 등을 돌아보시면서 작전전투방안들과 전투조법들을 연구하고 숙련할수 있게 작전연구실, 군사상학실, 종합훈련실을 잘 꾸린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부대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는 문제, 작전방안을 수정보충하는 문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비롯한 장비들을 더욱 현대화하여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는 문제, 훈련을 현대전의 양상과 현실조건에 맞게 조직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도서실과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식

당과 일일창고, 콩창고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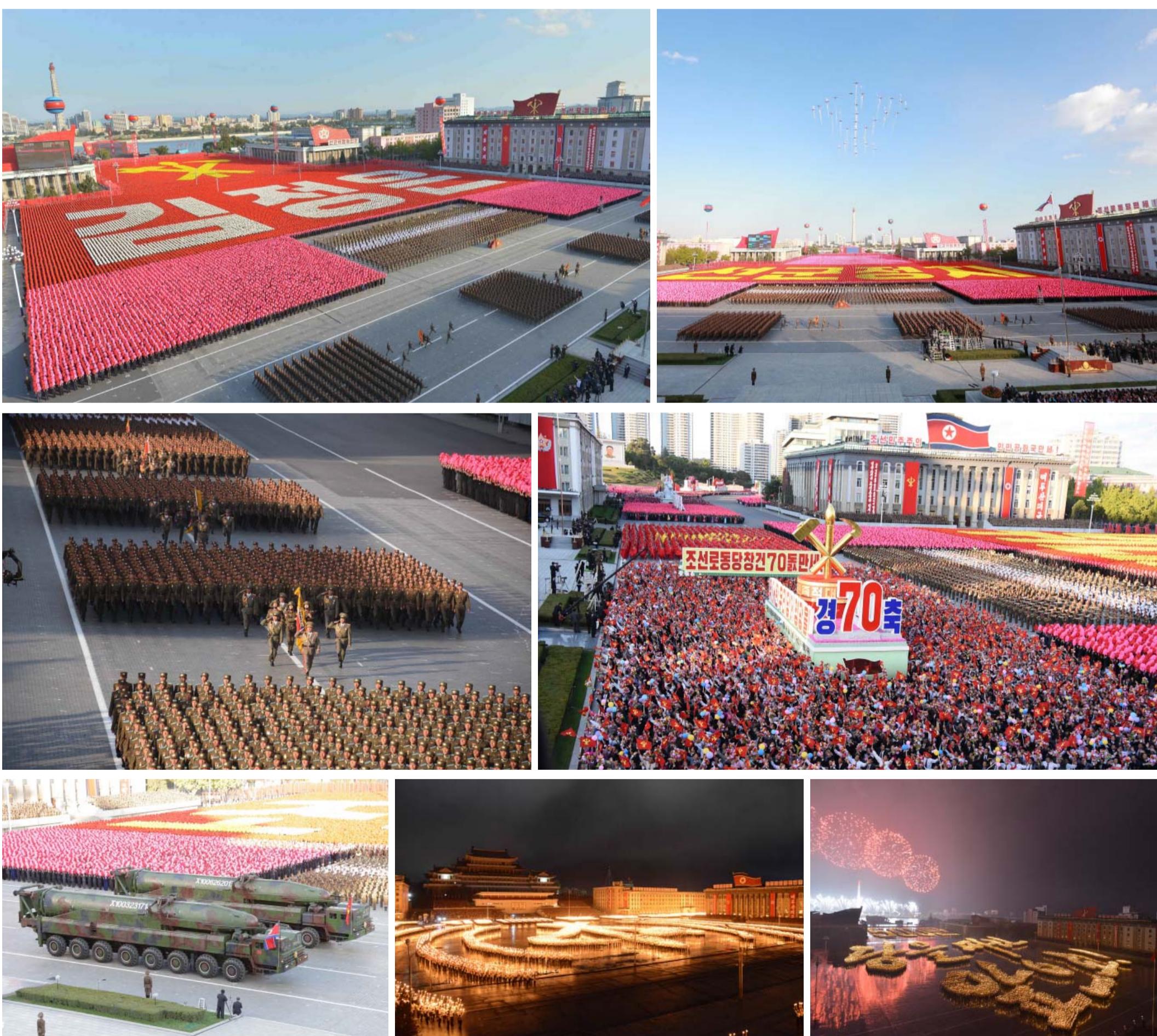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지휘부구내를 오래도록 거니시며 지휘관들과 담화도 나누시고 부대지휘관리실태도 묵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종시위와 청년전위들의 행렬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백발에도 젊음을 주는 로동당 세상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고 있는 공화국의 실상을 매일과 같이 접할수록 참으로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국민복지』를 떠드는 나라도 많고 그 실현을 정치 강령으로 내든 정당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민을 향해 안아 보살피는 당, 부모없는 아이들 일수록,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일수록 더 극진히 위해주며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는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 8월초에 진행된 평양양로원 준공식을 통해 이것을 다시금 새삼스레 절감하였습니다.

침실과 치료실, 운동실을 비롯하여 생활과 건강장수에 필요한 시설과 기재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시공은 물론 원림특화에 이르기까지 독특하면서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된 양로원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보면 서 나는 연방 터져나오는 감탄을 금 할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멋쟁이 건축물로 세상에 대고 큰소리칠만 한 그 양로원에서 무의무탁자들인 보양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년로자문제 해결이 난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똑똑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 궁전 같은 육아원, 애육원들에 이어 궁궐 같은 양로원이 건설되어 운영되는 현실은 참으로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로인학전문가로서 오래동안 여러 나라들의 년로자복지정책들을 연구해오며 나름대로의 출로를 모색해온 나로서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것은 내가 봇을 들게 된 동기로 되었습니다.

1

사람이 사느라면 누구나 로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어쩔수 없는 정신, 육체적 능력의 한계로부터 외부적 도움과 보호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1990년에 진행된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로인행동 계획실시와 활동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국제로인의 날』(매해 10월 1일)을 맞으며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에 세계인구의 7%에 불과했던 65세이상의 로인수가 앞으로 10년후에는 15% 이상, 2050년에는 21%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적인 년로자보호 실태는 너무도 암담합니다. 로인들은 『극심한 4중고』(병으로 인한 고통, 빈곤으로 인한 고생, 자녀들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고독,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료함에 의한 고충)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경우 로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합니다.

로인자살률과 빈곤률 세계1위, 로인소득 최하위...

심지어 무의무탁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돌봐준다는 『복지시설』들은 이름파는 정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란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세상에 로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남조선은 물론 국적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세계 도처의 년로자들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탄식이고 울분에 찬 절규입니다.

조선로동당의 년로자우대정책과 공화국에서의 그의 전면적 실시는 로인 문제 해결책이 더는 없다는 나의 인식을 스스로 부정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년로자들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해 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내세우는 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어디서나 년로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기풍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설날을 비롯한 명절날이면 아이들이 늙은이들을 먼저 찾아가 세배와 인사를 하고 상업봉사기관들에서 늙은이들을 위해 특별봉사를 하는 것이 공화국에만 있는 고유한 풍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전쟁에 참가하여 한목숨 바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항일투사들과 전쟁로병들, 빙터밖에 남지 않은 조국강토를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라원으로 꾸리기 위해 퍼땀을 아낌없이 바친 공로있는 년로자들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로, 최하층인 생으로 버림받고 있는 무의무탁로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더욱 국진합니다.

여러 단위들과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을 자주 찾아가 보양생들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세라온 것 성의를 다하고 그들의 아들딸, 손자, 손녀가 되어 친혈육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나는 공화국 언론들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독과 비판, 절망과 분노 등 다른 나라 로인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공화국 년로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생의 희열과 락관, 생기와 활동에 넘쳐있습니다.

공화국의 년로자들을 단순히 사회적혜택과 부양속에 대접이나 받으며 무위도식하는 세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당과 국가의 배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젊은 시절의 열정과 기백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식 표현을 빈다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기 위해 로당의 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이 자기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사회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으며 그들이 활력에 넘쳐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 있고 능력 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는 직종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관심과 배려 속에 수많은 년로자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최첨단과학기술발명과 인재육성, 후대교육과 향토관리 등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늙었어도 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고장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지니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공화국의 년로자들에게 다른 나라 로인들이 흐뭇 겪는 『성쌓고 남은 돌』, 『내버린 혼신작』으로서의 정신적 방황과 고민 같은 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에게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온갖 혜택과 배려가 더 잘 가당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년기에 이르면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일생치료비의 95% 이상을 로년기에 소비하게 된다고 하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인들의 치료비 부담은 엄청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된 의사당당구역제의 혜택으로

재중동포 리영철

의사들이 담당구역안의 로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검진과 예방의학적봉사를 해주고 병이 나면 정성다해 치료해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양생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 국진합니다.

양로원들에 대한 정연한 후방물자

공급체계가 세워져 먹을 것, 입을 것, 쓰고사는 모든 것 심지어 각종 영양식료품과 보약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보장되어 보양생들이 생활상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출판물을 통해 본 고령의 보양생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력에 넘친지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 90살, 100살 장수자들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화국에서도 해마다 국가적인 관심 속에 『국제로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진행되는 다채로운 체육 및 문화 행사에 참가해본 여러 동포들의 말에 의하면 젊은이들 못지 않게 공을 다루고 전문에 술인들을 무색케 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 년로자들이 파연 젊은이들이 맞는가하고 의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공화국의 년로자들 속에서 즐겨 애창되고 있는 『세월이야 가보라지』라는 노래에 이 모든 현실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홀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
정말이지 로동당의 손길 아래 주체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60청춘, 90한갑을 노래하는 공화국 년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는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과 기쁨을 안겨주는 인류리상 사회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

한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며 무병장수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소원입니다. 인류가 바라는 그러한 현실은 저절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로 되고 있는 년로자 문제는 바로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가 구현된 공화국에서 훌륭히 해결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이 경이적인 현실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은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세심한 관심과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찌기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강도 일제에 맞서 조국해방의 혈투를 벌리시던 그 나날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인민을 위한 동법안, 보험법 실시를 명문화하신 어버이주석님이십니다.

해방된 이듬해에는 그것이 법제화되어 년로자들에게 년로년금과 각종 보조금이 지불되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은 양로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부양하는 시책이 실시되는 등 년로자보호정책의 새 령사가 펼쳐졌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전국사업의 그 분망하신 속에서도 1948년 5월 7일에는 어리신 김정일장군님과 항일의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몸소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양로원(당시)을 찾으시였습니다.

해방전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서러웠던 보양생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파 아픔을 따뜻이 녹여주시며 지난날에 나라가 없고 자식이 없다 보니 고생이 많았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

린다고 뜨겁게 교시하신 주석님, 김정숙녀사께서도 일군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로인들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쓰고 있는 이불과 밥그릇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내가 공화국의 년로자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 받아들은 또 하나의 충격은 전시에 조차 년로자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배려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950년 대초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그 나날 주석님께서 내리신 지시들은 만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독신으로 된 로인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애육원과 초등학원, 양로원, 양생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아들과 무의무탁으로 있는 로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조를 주어야 한다.

파연 세계 어느 전쟁사에 군사인원들도 아니고 전쟁의 불가피한 산물인 전재민과 고아, 외로운 늙은이들의 운명 문제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그 토록 다심한 은정을 베푸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는 오직 이민위천의 리념을 가장 중요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실천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혁신에 전무후무한 인간사랑의 최정화입니다.

그러한 주석님이시기에 로인들을 만나실 때면 이 좋은 세상에서 왜 백살까지만 살겠는가하고 하시며 그들이 전강하여 여생을 즐겁게 보내도록 온갖 사랑과 혜택을 다 베풀어주시였던 것입니다.

공화국에서의 년로자보호사업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종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혁신에 전무후무한 혁신에 전무후무한 혁신에 전무후무한 혁신에 전무후무한 혁신에 전무후무한 혁신입니다.

지난해 2월 광명성장을 맞는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을 위한 명절특식상 차림표까지 보아주시며 대해 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사실은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일수록, 한품에 안아 더욱 극진히 위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인덕의 최고화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지난 3월 평양양로원 건설장을 찾으시여 양로원의 내부 및 외부형성에서 민족성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는 건물도 조선식 건축물로, 침실도 온돌침실과 침대침실을 꾸리도록 하시고 베개도 조선식 베개, 의자 대신 방석을 놓아주도록 하시였으며 일을 해야 밥맛도 나고 건강하여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시며 수경온실과 터발, 낚시터도 만들어주도록 하신 그 다심한 은정과 배려, 식탁도 늙은이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오르내리는 계단도 그들이 도중에서 다리쉼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도록 해주시고 육아원, 애육원에 잇달아 양로원을 건설하시여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외로움마저 가셔주신 그 다심하신 사랑을 어찌 한두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의 내부를 따라 설치된 탄간에도, 현대적인 미용실, 리발실, 구강치료실, 운동실들과 어느 하루도 떨구지 않고 공급되는 영양가동은 식료품에도 그들이 아무런 불편도, 근심걱정도 모르고 기쁨과 생의 활동에 넘쳐 여생을 보내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집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양로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아끼시던 명당자리에 세계 일등급의 양로원을 짓도록 설계와 자체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도 건설 일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신 그이의 사랑은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년로자들을 한 품에 안아 보살피시던 주석님의 사랑 그대로였으며 년로자보호 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들과 편의봉사망들에서는 로인들에 대한 특별봉사가 조직되는 등 혁명 선배들과 년로자들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고상한 미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혁명의 전세대들을 그토록 아끼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한량없는 사랑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아름답게 꽂펴나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혁명선배들인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조국해방전쟁 승리 59돐과 60돐, 62돐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을 평양에 불러주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로병들을 조국을 지킨 은인, 훌륭한 혁명선배,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라고 불러주시며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몇푼의 퇴직금에 기대여 근근히 살아가거나 그마저 없으면 락엽신세인 전쟁참가자들이 공화국에서는 인생의 최절정에 올라서는 현실, 진정 그것은 오직 공화국에서 만족될 수 있는 특유의 풍경입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국가적 명절과 주요계기 때마다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함께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 의복을 비롯한 갖가지 선물들을 안겨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그처럼 뜨겁고 진정한 사랑과 인정미를 지니신 분이 시기에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시려고 1월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해의 포구를 찾으시여 손수 계산까지 해보시며 그 보장을 위한 최고사령관 명령까지 하달하신 것 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2월 광명성장을 맞는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양

어머니당의 명절에 울린 인민에 대한 찬가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경축하는 10월의 광장에서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루어낸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만사람의 심장을 끌없이 울려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는 인민을 자주적인 민으로 내세워주고 온갖 행복을 다 안겨준 사랑의 력사이고 인민을 위해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린 자

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하기에 인민은 깨끗한 진정과 어머니당을 따르는 일편단심으로 당 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성대한 경축의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대축전장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이란 부름으로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를 총화하시였으니 이것은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의 찬사이다.

어머니손길로 보살피는 조선로동당의 창건 70돐에 한가지라도 더 큰 선물을 드리려고 아글라굴 하며 축하의 인사를 준비해온 인민이지만 정작 10월의 경축광장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그것도 령도자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의 감사를 받은 것은 인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크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이의 연설을 들으면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가슴뭉클하게 받아안고 뼈에 새기였다.

인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짹 차있는 것은 인민뿐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인민중심, 인민제일주의로 일관시키고 계신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광장에서 인민을 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밟아온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하실 용

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훌러온 공화국의 날과 달들은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세상을 놀래우고 감동시킨 애민헌신의 날과 달들이 였으며 인민을 위한 기적창조의 흔적이였다.

전국 도처에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풍라인민유원지와 같은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흐르는 문화생활기지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장, 어장, 농장들이 흥旺盛을 데 없이 건설되었다.

이 땅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놀랍고 희한한 것은 비단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족술이나 현대적 미감, 생산공정의 현대화때문만이 아니다. 그 놀라움과 현란함은 바로 인민이 그것의 향유자라는 것이다.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라주고 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속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라면

흙먼지 날리는 건설현장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사소한 흠도 없이 완벽하게 건설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인사도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수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중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를 락으로 여기시며 민중의 행복한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김정은령도자님의 인자하신 영상은 진정 민중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민중의 참다운 형수, 민중 중심의 애민정치가, 구세제민의 태양의 모습으로 세인의 경탄과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얼마전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앞두고 큰 물파해를 입은 라선지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전설이 또 태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8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라선지구에 구사업을 중요하게 제일 먼저

토의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고도 큰 물파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폐허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며 몸소 폐허현장을 찾으시였다.

그이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라선땅으로 달려가 불파 30여 일동안에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선경을 펼쳐놓았다.

큰 물파해지구가 사회주의 선경마을로 홀륭히 꾸려졌다는 것을 아시고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보내시였으며 하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북변 땅을 또 다시 찾아주신 원수님이시다.

인민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정이 있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은 터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 힘은 무한한 것이다.

령도자의 인력정치에 매혹된 인민이 반드시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무궁한 힘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백전백승하는 것이다. 10월의 광장에서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웅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 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고,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 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은 전체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인민을 정말 좋은 인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영원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믿고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혁명의 한길을 인민과 함께 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인민의 일편단심을 넣고 천하제일 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가장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그 무엇으로써도 끄뜨릴 수 없는 이 위력으로 하여 공화국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갈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인민의 눈물, 결정의 환희

세상을 둘러보면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다채로운 축전과 행사들이 진행된다.

그러나 어느 행

사장을 둘러보아

도 공화국에서

와 같이 령도자

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친목만경의

성새를 쌓은 일심

단결의 위력을

파시한 그런 행사나 축전은 찾

아볼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

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광장

주석단앞을 지나가던 군인

들과 인민들, 청년학생들.

인민의 눈물, 결정의 그

만세소리는 억지로 지어낼

수도 없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열렬한 것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

체를 이룬 장엄한 화폭앞

시는 여기에 존엄높은 공화

국의 불폐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이 혼연일체의 위력이야말로 조선의 강대성이 고 불폐성임을 힘있게 파시한 축전이였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혼연일체를 두고 『조선의 국력이 강한 것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여기에 조선의 위력한 힘의 원천이 있다. 조선인민처럼 령도자를 높이 빛들여 모시고 열렬히 흡모하며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열병식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것이다.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는 열병대오의 모습에서 령도자에 대한 군민의 강렬한 경모심을 느낄 수 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조선의 천민군민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아낌없는 찬사와 부러움의 경정을 터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보다 강한 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공화국은 어제도 그려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백승만을 이룩할 것이며 세상만방에 그 위용을 높이 펼쳐갈 것이다.

10월의 경축광장을 진감시킨 군민의 우렁찬 만세소리는 일심단결의 메아리가 되어 세월의 끝까지 울려갈 것이다.

하지만 올 때마다 조국인민들의 고귀한 피와땀, 열렬한 애국심으로 이루어진 눈부신

본사기자 리경월

또 어디 있을가 하는 생각에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 사랑을 최고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령도자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만이 년로 자보호의 새 령사를 펼치실 수 있었으며 주체사상이 구현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흥내낼 수 없는 궁궐같은 년로자들의 보금자리가 꾸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평양양로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밟아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선물이며 조선로동당의 인력정치

천지개벽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이것을 나 하나의 심정이 아닐 것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초청을 받고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서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성대하게 진행된 열병식과 평양시민들의 군종시위, 청소년들의 해불시위를 초대석에서 관람하면서 령도자와 인민들의 공고한 일심단결, 자기 민족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다시금 깊이 체감하였다.

그러던 조국이 어떻게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는가.

처음으로 내가 조국을 방문한 것은 1998년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평양과 남포, 원산과 사리원, 개성 등 조국의 여러 곳들과 금강산과 묘향산도 돌아보았다.

이 나날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가는 곳마다에서 나를 따뜻이 맞이해 주고 혈육의 정으로 대하여 준 조국인민들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부터 이번 까지 다섯 번째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경축행사에 참가하면서 나는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심단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조국통일』이라는 표어들

이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 아니라 조선로동당과 조국인민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을 뇌리에 새기게 되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거둔 훌륭한 성과들에 대하여 그리고 많은 전시관들과 현대적으로 변모된 평양의 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과 리상을 받들고 조국인민들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섰으며 보다 큰 성과를 끌없이 이루하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열병식에 참가하여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군인들을 보면서는 조선인민군의 혁명성과 전투력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적들의 도발책동을 임의의 순간에 단호히 짓부실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눈가에서 솟구치는 눈물은 존엄 높고 궁지스러운 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기쁨과 행복의 분출이었으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었다.

이번 경축행사에 참가하면서 나는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심단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조국통일』이라는 표어들

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천지를 진감하며 창공높이 울려퍼지던 만세의 환호성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이런 광경을 연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령도자와 인민이 있는 나라가 바로 내 조국이다.

그러니 조국을 떠나는 나의 마음이 왜 허전하고 서글프지 않겠는가. 나는 매일 귀국하게 된다.

수천km나 되는 거리가 나를 조국과 멀리 갈라놓고 있지만 조국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지척이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는 격언을 굳이 강조하고 싶다.

나의 심장과 마음은 언제나 여기 조국과 잊어 있으며 무한한 궁지와 행복을 안고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달리는 살수 없는 나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기관지 『통일』 신문 주필 설미란



아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참모습입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로인들의 폐해한 삶』이니, 『총성심』을 기준으로 평양양로원 보양생들을 선발한다느니 뛰니 하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년로자들을 혁명의 선배, 웃사람으로 존대하고 그들에게 짚음을 과 기쁨을 안겨주는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와 그 빛발 아래 꽂페는 공화국의 찬연한 현실은 결코 의외 할 수도, 깎아내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지방의 양로원 보양생들에게도 평양양로원과 꽃같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처

에 궁궐 같은 양로원을 새로 건설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건설이 완공되면 보낼 양생들이 보다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기에 지금 세계는 돋 많은 자들이 나를 수 있는 초호화시설을 갖춘 양로원에서 평범한 무의무탁늙은이들이 돈 한푼 안들이고 행복을 누리는 회한한 광경,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양생 누구나 따뜻이 보살펴주는 현실에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애로운 태양의 빛발 아래 고목에도 꽃을 퍼우는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이 찬탄하고 동경하는 인민중시, 인간만세의 참세상입니다.

하기에 나는 『로인들을 위한 나라』고 한식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로인들을 위한 나라, 백발에도 짚음을 주는 나라는 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수령들이 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께서 세우시고 세계에 빛내여 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나라, 오늘날 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영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약동하는 짚음을으로 비약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령마루로 승승장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민심은
독재를
용납치
않는다

해마다 찾아오는 10월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 서 『유신』 독재의 살풍경을 되새겨주는 것과 함께 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새싹을 키워내 주었을 불러주는 의미 깊은 달이다.

1972년 10월 17일, 남조선에서 당시 독재자 박정희가 『비상사태』 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 체제를 조작하였다.

『유신』 체제는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합법화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를 강그리 말살하려는 극악한 파쇼독재 체제였으며 『두개 조선』 조작으로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반통일대결체제였다. 아울러 외세를 무한정 불잡아두고 더욱 본격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을 영구한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매국배족의 체제였다.

『유신』 체제가 조작됨으로써 남조선은 자주, 민주, 애국적인 모든 것이 교살된 암흑천지로 화하였으며 조국통일을 넘원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것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용당한 분노를 자아내었다.

『유신』 파쇼독재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은 해를 거듭하며 쌓이고 쌓여 마침내 1979년 10월 16일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반 『정부』 투쟁이, 나아가서는 부산시내 수많은 로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

났다.

폭압을 박차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부산의 청년 학생들과 각계 인민들은 『독재(정권) 퇴진하라!』, 『(유신헌법) 폐하라!』, 『학원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용감히 싸웠다.

부산에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은 삽시에 마산과 서울, 대구와 광주, 전주와 청주, 울산 등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쓴 대중적인 반 『정부』 투쟁으로, 민주항쟁으로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유신』 파쇼독재의 종말을 가져오야 말았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훌렀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나고 세기가 바뀐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주와 정의를 향한 혁신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파거의 퍼미린내 나는 『유신』 파쇼독재가 다시 부활되고 있다.

『유신』 독재자의 후예인 남조선 당국자에 의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린 통일애국인 사들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있으며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투쟁에 나선 진보세력들이 『종북세력』으로 몰려 탄압당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를 격분시키고 있는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그 무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도 『유신』 독재부활책 동이 낳은 산물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정의와 진보를 말살하고 사대와 매국, 파쇼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벌리는 혁사교파 『국정화』 놀음은 『유신』 독재부활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금권을 동원하다 못해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관권을 총발동하여 불법비법으로 권

력을 가로챈 현 남조선 집권자가 『정권』의 정통성과 조상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혁사교파서의 꼬불음을 깨달리고 있으니 남조선 인민들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당국의 혁사교파서 『국정화』 놀음을 『유신으로의 회귀』, 『혁사쿠데타』라고 단죄 규탄하면서 『박근혜 사파』, 『국회』 일정거부 등으로 강하게 반발해나고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인민들도 여러 가지 형식의 투쟁을 벌리며 강력히 단죄 규탄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지에서 혁사교파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힘차게 울려 나오는 항거의 웨침은 혁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독재 세력의 망동을 단호히 짓부시려는 민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와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민심은 불의와 매국, 파쇼독재를 결코 용납치 않는다.

본사기자 김응철

항공모함 띠워놓고 가족장봉 하려는가

미국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그 무슨 『관함식』이라는데 참가한다는 명목 하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 호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전투함선집단을 부산 해군기지에 들어밀려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참가하였던 전투함선집단을 주축으로 하여 남조선 미 국군과 함께 상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처』 한다는 미명 하에 미 해병대 전체 무력의 15%를 하와이와 팜도 등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 할 것이라고 떠는 것도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이 그에 로그적으로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 저들의 동북아시아지역 전략을 실현해보려는 책동의 산물이다. 한편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추종하여 항공모함을 끌어들이려 하면서 그 무슨 『확고한 동맹 강화의 과정』, 『굳건한 〈한〉 미동맹으로 북의 변화 유도』니 뛰어난하고 대결적인 폭언들을 늘어놓고 있어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북남 사이에 극적으로 마련된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핵 항공모함 까지 들어들여 대화상 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것은 완화의 기류에 토글적으로 침몰을 끼었으려는 위험천만한 반공 화국적 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금강산에서 모처럼 흘러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에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 강행되어 상봉 행사

분위기를 극도로 흐려놓았다.

침략을 예고하는 대 규모 전쟁 장비들이 집결되고 대화상 대방을 위협하는 핵 전쟁 연습들이 련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불신과 대결의 깊이가 더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판

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바란다면, 흘러진 가족, 친척들의 아픔을 절감한다면 어렵게 마련된 완화와 흘러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대결적인 전쟁 행위들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대화상 대방에 대한 정치적 도발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남조선 당국의 동족 대결자세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남조선을 행각한 도이 퀄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집권자가 한 말에도 그들이 드러나 있다.

그는 『북핵 포기와 인권 문제를 위한 공조 강화』, 『도이 퀄란드 통일 경험』 이니 하며 체제 대결의 흥심을 토글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나중에는 『국제 사회에 〈한〉 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겪은 도이 퀄란드 이기 때문에

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이번에 남조선 당국자가 도이 퀄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체제 대결 망언을 또 다시 늘어놓은 것은 그들의 변하지 않은 대결 흥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은 대결과 충돌을 불러올 『흡수 통일』이 아니라 가장 공명 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인 련방제 방식의 통일이다.

남조선 당국이 추구하는 『흡수 통일』은 체제 대결의 길이고 그 끝은 북과 남의 재난적인 충돌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목숨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이룬

바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이 통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에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온 세상에 다시금 파시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 단결의 위력,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의 힘은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흡수 통일』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루지 못할 허망한 개꿈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가는 저들 자신에게 돌아킬 수 없는 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본사기자 최명제

꿈은 『천국』, 현실은 지옥

남조선 집권자가 지난 『대선』 시기 내걸었던 『공약』 중의 하나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남조선 인민들 대다수가 그 『꿈』에 흐믓해했다. 지금은 깨닫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3월 남조선의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가 생활 고로 자살을 했다.

그들이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써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세모녀를 죽음으로 떠밀었건만 그들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세모녀만이 아니다.

올해 5월에는 『사는 게 힘들다. 화장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경기도 부천에서 세자매가 자살을 했고 같은 달 『나를 화장하여 제철소 문 앞에 뿌려달라.』고 하며 광양제철소의 로동자 가 그렇게 잤다.

지난 8월 21일 부산에서는 4년째 취업을 못한 대학 졸업생이 자살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목숨일 따름이었다.

그나마도 유지 할 수 없어 자살을 택하였다.

왜? 그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이 대답을 준다.

최근 서울 대학교 병원 측이 1년간 자살 시도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유를 문의한 분

이루어질 수 없고 악이 강요하는 꿈은 상상도 환상도 아닌 망상이라는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노를 참지 못한 결과였다는 대답이 78.5%였다고 한다.

또 어느 한 전문가는 사회의 가족 붕괴, 가족 살인이 련발하고 있는데 대해 『세대 단절』, 『가족 기능의 소멸』, 『가족 갈등 폭력화』, 『가족 구성원의 소외』, 『하층 계급의 투명 인간화』 등을 요인으로 밝히면서 부천 세 자매 자살 사건이 그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사회 갈등 연구소 소장은 자살에 대해 『생존 위기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사회적 인 요인이 주원인』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만이 아니다.

서울 명문 대학교를 나온 한 실업자는 좌절에 빠져 『쓰레기통에 쓰레기 를 버리다』(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것은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소연하였다.

한 민간단체 회원은 집권자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 『내 꿈은 정규직』으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집권자가 말하던 『내 꿈』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자, 권력

자들만의 호강이었던 것이다. 직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회의 버림을 받고 꿈마저 빼앗긴 남조선 인민들은 극단적인 자살을 택한다.

하지만 그들의 자살은 자기 생의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린 사회에 대한 항거이고 『나』와 같은 생이 그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기 바라는 비참한 하소연이며

남조선의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의 자살자수를 밝히면서 그 수는 최근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수보다 더 많다고 비평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07~2011년까지의 자살자는 7만 1,916명으로 이라크 전쟁 사망자 3만 8,623명보다 약 2배 많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 1만 4,719명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자살자수도 정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연간 자살자는 약 1만 5,000명 가량이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 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도 15만~3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집권자가 말하는 『내 꿈』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자, 권력

반인간적 사회에 대한 처절한 고발인 것이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유서는 단지 집 주인에게 남긴 말이 아니었다.

내가 살기 위해 선 네가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제도, 돈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각박한 사회에 대한 항거이고 고달픈 인생살이의 마지막 막장을 드러내놓았다.

『나』를 버린 사회에 대한 항거이고 『나』와 같은 생이 그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기 바라는 비참한 하소연이며

남조선 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벌린다.

아이들은 『왕따』와 학교 폭력 속에 살아남기 위해, 청소년들은 대학 입학과 『미친 등록금』, 취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삼포 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년들은 직업과 가정 유지를 위해, 노인들은 말년기의 불우한 생을 이어가기 위해...

남조선의 자살자, 그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정도가 아닌 살벌한 생존 전쟁의 희생자들인 것이다.

지난해에만 1만 4,000명에 가까운 자살자가 나왔고 특히 극심한 학업 부담과 취업 난을 겪고 있는 20대 이하 청소년 자살

자가 1,450명으로 전체 자살자 10명 중 1명은 여전히 20대 이하 청소년층이라고 한다.

최근 남조선 청년들 속에 유행되는 신조어들은 사회의 지우개

내가 살기 위해 선 네가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제도, 돈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각박한 사회에 대한 항거이고 고달픈 인생살이의 마지막 막장을 드러내놓았다.

『지옥 같은 한국』을 의미하는 『헬조선』, 사람 없에도 못 가는 서민들을 가리키는 『똥수저』, 『한국』을 탈출해야 산다는 『탈조선』, 『대한민국』의 『대』를 『개』로 바꾼 『개한민국』, 뜻그대로 지옥을 의미하는 『지옥불반도』, 외로움, 우울, 무력감의 악순환 속에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뜻하는 『온둔형 외톨이』 혹은 『무종령 청소년』...

남조선 사회는 말그대로 수라장이다.

청년들이 대부분인 남조선 군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진실에 칼질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범죄적망동

역사의 진실을 외곡하는 범죄자들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난 12일 남조선의 현 보수 당국은 중학교, 고등학교들에서 『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정교과서제』라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파쑈독재와 친미친일사 대체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파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 미문의 역사사건이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수파당의 『국정교과서제』 놀음을 『유신으로의 회귀』, 『21세기 분서개정』로 규탄하면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현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여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으며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도 각종 시위투쟁을 벌리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파당은 『유신체제』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느니 뭐니 하면서 민심의 분노를 누اش혀보려고 오그랑수를 쓰는가 하면 현 집권자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옳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제』를 끌까지 밀어붙일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국정교과서제』로 말하면 박정희 집권시기인 1974년부터 학생들에게 『옳바른 국가관』을 세워준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것으로서 『유신』 독재를 친미하고 친일, 친미, 파쑈독재를 정당화하며 동족대결을 고취하는데 악용되어왔다.

그러나 교육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각계층의 지향과 요구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2003년부터 민간출판사들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들을 『정부』 소속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받아 중

학교, 고등학교들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제』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추악한 민족반역자인 리명박이 집권 때 『좌파척결』을 떠들며 역사교과서 개악 놀음에 열을 올리었지만 지금처럼 사회 각계층의 항의가 두려워 감히 『국정교과서제』 부활 놀음을 벌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좌파세력의 리념도구』로 되고 있다. 느니,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세워주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국정교과서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녔던 끝에 이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선포하는 놀음을 공공연히 벌려놓은 것이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정의와 진보를 깡그리 말살하고 사회를 국도로 반동화, 보수화하려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이러한 광대 놀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 성스러운 역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보수파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국해방위업을 빛나게 성취하고 자주와 번영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파시해온 공화국의 궁지높은 역사를 외곡하고 비방종상하면서 혈腥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체제가 정상인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

제를 마구 훨뜯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외곡하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주입시키려고 발광하는 보수파당의 망동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적대와 대결만을 추구하는 반통일적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는 『관계개선』에 대해 떠벌이고 돌아앉아서는 끌수에 들어찬 체제대결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광하는 이렇듯 속이 시꺼먼 자들과 마주앉아 무엇을 해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보수파당이 『국정교과서제』 도입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파쑈독재와 친미친일 대체국으로 얼룩진 추악한 파거사를 덮어버리고 사회전반을 더욱 반동화, 보수화하여 장기집권의 암망을 이루어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의와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으며 역사외곡과 반동적인 역사교육으로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려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로 될뿐이다.

비렬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역사의 진실에 칼질을 하고 동족대결과 무모한 정치적도발을 서슴지 않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범죄 행위는 온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조선의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파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제 104(2015)년 10월 15일
평양

범죄적인 역사외곡놀음을 당장 중지해야

지금 남조선에서 중고등 학교 역사교과서를 친미친 일제국과 파쑈독재, 동족대결을 합리화하고 친미하는 내용으로 뜯어고치려는 범죄적인 책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역사학을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경분을 금할 수 없다.

역사는 진실의 기록이며 그 누구의 입맛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외곡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친일대국과 독재의 후손들인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감히 외곡하려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해국에, 불의가 정의에 칼질하는 거꾸로 된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우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저들의 비렬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해서도 제나름대로 마구 외곡하여 교과서에 서술하려고 발광하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로 70돐이 되는 나라의 해방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두밀림에서 20성상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안아오신 민족사의 사변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수많은 역사기록들과 오늘도 보존되어 있는 항일전적지, 구호문현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민족해방투쟁사마저 감히 외곡하려는 것은 민족사의 기본줄기에 칼질을 하고 거예의 존엄에 먹칠을 하려는 용납 못할 매국배족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들

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의 만년재부인 민족해방투쟁사까지 외곡하려 하지만 그것은 순박으로 해를 가리워보겠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백두산정신으로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를 끌어내고 독립을 안아온 항일렬사들의 뜻을 이어 민족자주정신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이다. 이 거세찬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사대와 대국으로 일관된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누구도 부정 못하는 민족사의 사변까지 외곡하려는 범죄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놀음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위광남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나는 오래동안 학생들에게 역사교과서를 가르쳐온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적인 역사교과서수정 놀음을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후 70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친미로 둔갑한 친일세력과 그 후손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 종식해온 날들이고 민주주의를 너울로 쓴 독재가 횡행해온 달들이며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대결과 분열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살아가자면 친일, 친미의 사대줄종도 해야 하고 『쿠데타』도 서슴지 말

아야 하며 동족파는 끝까지 대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자는 것인가.

역사는 분칠한다고 달라질 수 없고 날조한다고 변할 수 없다.

나는 공화국의 역사학자들과 교육자들의 이름으로 남조선의 역사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호소한다.

아이들에게 옳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민족의 후대들에게 참된 역사관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민족사를 좀 먹는 자들의 책동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그들의 죄행도 역사에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금성학원 교원 리광철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 남조선 각계가 규탄 -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놀음을 반대해 격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의 교육계는 『유신의 망령』이 살아났다.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하겠다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의 역사』는 위정자나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린 국정교과서집필』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제대로 된 학습자료를 따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옳바른 역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집필과 평가는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교과서』라



용납될 수 없는 역사외곡, 역사강탈행위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놀음을 반대해 격하는 각계의 항의와 규탄이 비발치고 있다.

야당들과 진보민주세력들은 『친일과 독재를 합리화』 하려는 책동으로 준렬히 규탄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서고 있다. 대학교수들도 당국이 주도하려는 역사교과서 집필참가자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원들도 불복종운동을 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 세력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니, 『옳바른 역사교과서』니 뭐니 하는 기만적인 잡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 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추악한 민족반역자인 리명박도 집권시기 『좌파척결』을 떠들며 역사교과서 개악 놀음에 열을 올리었지만 지금처럼 사회 각계층의 항의가 두려워 감히 『국정교과서제』 부활 놀음을 벌리지 못하였다.

남조선의 보수파당이 『유신』 독재시절 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실시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친미친일대국과 독재의 지나온 역사를 합리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반동적력사관을 주입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반동화하고 보수화, 파쑈화하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알려진 것처럼 남조선에서는 현 『정권』이 출현한 후 사대대국과 파쑈독재, 반통일로 얼룩진 파거법죄를 정당화하려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역사외곡책동이 더욱 우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저들의 반역통치에 유리하게 뜯어고치려는 보수당국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 수 있다.

현 보수당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뒤받침 속에 보수어용학자들이 만든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민지통치를 미화하고 『유신』 독재자를 그 무슨 『성장』의 주역으로 『산업화의 은인』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5.16 군사쿠데타와 남조선 일본 『협정』 체결을 터무니없이 『혁명』과 『경제발전의 계기』로 외곡하는 등 역사

를 파렴치하게 날조한 내용들

이 서술되어 있다. 하여 이 교과서는 나오자마자 광범한 여론의 웃매를 맞고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남조선당국이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이런 범죄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미명하에 다시 도입하려는 것이 아말로 미국을 애국으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킨다.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역사의 진실에 칼질을 하고 동족대결 망동과 무모한 정치적도발을 서슴지 않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범죄 행위는 온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우기 간파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당국이 저들의 범죄적인 역사교과서와 과수정 놀음을 합리화하려고 공화국을 악랄하게 종상모독하면서 동족대결과 반통일에 서슴지 않는 것이다.

역사를 외곡하고 정의와 진리를 말살하려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망동은 손바닥으로 해를 치우고 해마다 5.16 군사쿠데타와 6.25 전쟁을 전개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역사를 외곡하고 정의와 진리를 말살하려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망동은 손바닥으로 해를 치우고 해마다 5.16 군사쿠데타와 6.25 전쟁을 전개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으며

존재하는 법이다.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 써도 가리울 수 없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주 광 일

